50개 州를 상징하는 성조기들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워싱턴DC(District of Columbia)가 미국의 행정 수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DC 주변을 순환하는 벨트웨이(beltway)I-495를 타고 중앙 광장으로 들어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기리는 기념탑(Washington Monument)이 자리 잡고 있다. 50개 州에서 가져온 돌로 만든 석조 기념탑을 중심으로 ▶서쪽에 에이브러햄 링컨 기념관(Abraham Lincoln Monument)과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Cemetery) ▶동쪽에 국회 의사당(Capitol) ▶남쪽에 포토맥 강가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Thomas Jefferson Monument) ▶북쪽에는 백악관(White House)이 서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 헌법의 기본정신인 견제(checks)와 균형(balances)를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한 눈에 엿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이 중심에 있으면서 ▶링컨은 의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건너편에 있는 국회 의사당을 지켜보고 ▶제퍼슨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나 않은지 늘 백악관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DC 중앙 광장에서 미국 헌법의 정신을 실감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 성조기와 56개 주자치령 깃발 19만1천500개가 빼곡히 꽂혀 있다.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46대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국회 의사당에서 있었다. ▶이날 국회 의사당 정면에 있는 내셔널 몰에 코로나 19로 미국 시민이 모일 수 없어 50개 州를 상징하는 수많은 성조기(Stars and Stripes)들이 펄럭이며 축하를 보냈고 ▶미국 의회 상원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대통령의 취임을 특별히 기념하였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가 메릴랜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DC 중심에서 포토맥 강기슭에 있는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후문에 연결된 위스콘신 에버뉴를 따라 올라가면 된다. KAIF